

야담을 통해 본 노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박 양 리*

차 례

- | | |
|--------------------------|------------------------|
| 1. 서론 | 3) 노인의 장수 : 가문 번영의 상징 |
| 2. 노인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 4) 노인의 탐욕 : 비난과 해학의 대상 |
| 1) 노인의 신성성 :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 | 3.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
| 2) 노인의 경륜 : 지혜와 경험의 전수자 |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야담 속에 나타난 노인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다. 고대사회에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추앙받던 신격(神格)으로서의 노인은 야담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 대신 괴이한 존재로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거나, 가문과 개인의 영달을 예견하는 예언자로서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 노인은 경륜을 지닌 존재로서 지혜와 경험의 전수자로 존경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 노인의 장수는 가문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야담 속에서 자손이 번창하고 가문이 창달했

*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을 때 노인의 삶은 축복받을 만한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노인이 개인적 욕망, 특히 재물과 색(色)을 탐하는 경우에는 비난과 해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인 인식의 저변에는 조선 사회가 바라던 노인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 야담 향유자들은 개인적 욕망이 거세된, 국가와 가문 번영의 상징으로서 노인의 이상적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에 이르러서 다시금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노인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노인, 노년, 노인인식, 야담, 노인문제

1. 서론

현대의학의 비약적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노년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물론 언제부터를 노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년의 시기에 접어드는 노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객관적 지표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노쇠해짐과 동시에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물러난 이후의 삶을 노년의 시기라고 할 때 그 시기가 길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사회 전체에 있어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의 서막을 열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¹⁾ 이

1)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국가를 일컬으며,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국가,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채영희, 『노인 어휘망에 나타난 ‘늙음’의 의미분석에 따른 새로운 노년 인식』,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5, 104-105쪽 참조.

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학문 전 분야에 걸쳐서 노년 혹은 노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부터 긍정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물론, 문학 분야에서도 노년 문학과 노년 작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의 깊이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삼스럽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노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나이 들어 늙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나이든 사람을 지칭하는 ‘노인(老人)’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 스스로부터 노인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과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서 기인한다.²⁾ 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은 점점 더 생활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노인은 예외없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정의되기도 한다.³⁾ 그렇다고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함께 나이들어가는 존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해하고 공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전통사회에서는 과연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고전문학에서 찾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고전문학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화와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신화와 전설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중심이 되었고,⁴⁾ 민담의 경우

2) 위의 책, 참조.

3)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304쪽.

4) 간호옥, 「한국 설화문학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효사상 연구」, 『인문과학논집』 9집, 강남대학교, 2000;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제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에는 <노인재혼담>이나 <고려장이야기> 등 각 유형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노인 형상 혹은 효 사상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⁵⁾ 시가의 경우에는 주로 조선후기 <노인가>류 가사와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⁶⁾와 특정 작가의 노년 시기 작품에 대한 연구⁷⁾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야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진척된 바가 없다. 김양진의 연구⁸⁾가 있으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사회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을 구체적인 야담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야담은 시정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이나 인물의 일화들, 다양한 문헌 속 이야기들을 편찬자가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다. 결국 야담집에는 시정세대와 관련된 민중의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사대부 가문과 사대부 사회에서 형성된 이야기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어, 상하층의 인식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회 속에서 노인

-
- 5) 정규식,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설화의 재해석과 인문학적 성찰」, 『국어국문학』 177집, 국어국문학회, 2016; 정상진, 「구비 <노인재혼담>에 투영된 효의식」, 『한국민족문화』 2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김선아, 「민담에 나타난 노인을 보는 몇 가지 시각」, 『한국노년문학연구』 2, 국학자료원, 1999;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권경숙,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 『한국문학논총』 76집, 2017.
- 6) 이수곤,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11; 정인숙,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문학치료연구』 19집, 문학치료학회, 2011; 이수곤, 「노년의 형상화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 -조선 후기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집, 2009.
- 7)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 『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학회, 2010; 「매월당 김시습의 노년시」, 『한문학논집』 41, 근역한문학회, 2015; 이항배, 「취음 권중면의 한시에 나타난 노년기 삶의 지향과 죽음」, 『한문학논집』 44, 근역한문학회, 2016.
- 8) 김양진, 「한국 야담문학에 나타난 노인연구」, 『노인복지연구』 30,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의 위치와 그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의 연구대상 텍스트는 『고금소총』, 『어우야담』, 『천예록』, 『박소춘화』, 『청성잡기』, 『학산한언』, 『송천필담』, 『동패락송』, 『계서야담』, 『기문총화』, 『청구야담』⁹⁾이다. 이들 야담집 속에 등장하는 노인¹⁰⁾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노인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1) 노인의 신성성 :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과 가까운 존재였

-
- 9)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주로 대표적인 야담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들 가운데 국역된 야담집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저자 및 이본에 대한 검토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텍스트로 사용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정용수 역, 『고금소총』, 국학자료원, 1998; 유몽인, 이월영·채귀선 역,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1996; 임방, 김동욱·최상은 역, 『천예록』, 명문당, 2003; 성대중, 김종태 외 역,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신돈복, 김동욱 역, 『국역 학산한언』 1·2, 보고서, 2006; 심재, 신익철 외 역, 『교감역주 송천필담』 1·2·3, 보고서, 2009; 노명흠,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보고서, 2012;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 상·중·하, 아세아문화사, 2008; 이월영·시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이후 작품 원문 및 해석은 위의 책을 인용하되,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책명과 쪽수만 밝힌다.
- 10) 본고에서 사용하는 ‘노인’은 노년의 시기에 접어든 남녀의 총칭이다. 야담 속에서는 ‘노인(老人)’, ‘노옹(老翁)’ 등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노제상(老宰相)’과 같이 접미사 ‘노(老)’가 붙어 노년의 인물임을 짐작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백발, 주름 등과 같은 외견 묘사나, 며느리나 손자 등의 존재와 같이 서사적 맥락에서 인물이 노년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 주도적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은 물론, 보조적 역할로 등장하는 작품들 역시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존재한 이들 노인은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¹¹⁾ 그래서 백발이라는 외형적 지표는 남녀를 막론하고 초월적 권위를 지닌 신격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야담에서도 신격으로 볼 수 있는 신성성을 가진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나 야담에서는 이러한 노인이 가진 신격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으로 폄훼되거나 권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천예록』의 <사인가노구작마(士人家老嫗作魔)>에는 괴이한 할미와 그 남편인 노인이 등장한다. 어느 선비 집에 나타나 길쌈을 도와주던 할미는 처음에는 몇 사람 분의 일을 하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집안의 대접이 소홀해지자 이내 집안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감실을 차지한 할미와 노인은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과 선비의 아내는 모두 병들어 죽는다. 이 이야기 속의 할미와 노인은 예닐곱 사람 분의 길쌈을 능히 했다는 점과, 신주를 모셔 놓는 곳인 감실을 차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적 존재인 이들은 결국 집안을 파멸로 몰아가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역귀로 그려진다.¹²⁾

『어우야담』 162화에서도 노인의 형상을 한 역신(疫神)이 등장한다. 예로부터 삼척읍에서는 머리가 흰 노인(白頭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읍의 원님이 죽었다. 어느날 관찰사 송기수가 삼척부에 들어와 머물고 있었는데, 한 밤에 머리가 흰 노인이 나타나서는 “부사인 줄 알았는데 감사로 군!”이라고 말하더니 사라졌다. 송기수가 하인들을 불러 꾸짖었지만, 아무도 외부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고했다. 다음날 부사의 병이 위독하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백두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일

11) 시몬 드 보부아르, 앞의 책, 86쪽 참조.

12) 김국희,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70집, 한국문화회, 2015 참조.

반적으로 옛 이야기 속에서 귀신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때에는 원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백두옹이 나타나면 반드시 읍의 원님이 죽는다는 말로 미루어 그의 정체를 죽음과 관련된 역신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두 야담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모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 신격으로 그려지고 있다. 야담의 향유자들은 이들에 대해 두려워하고는 있으나 그 감정은 신성에 대한 경외와는 거리가 멀다. 괴이한 것을 꺼리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시선은 『천예록』의 <맹도인휴유화시(孟道人携遊和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스스로 신인(神人)이라고 자칭하는 맹도인에 대해 『천예록』의 저자인 임방은 “이는 모두 크게 요사스러운 마귀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¹³⁾이라면서 괴이하다고 평한다.

물론, 신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들이 모두 부정적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신이한 능력에 대한 공경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다. 특히 신성성이 가족 구성원의 회복을 위해 발휘되는 경우 신격으로서의 노인은 구체적으로 집안의 조상으로 인식되며, 공경의 대상이 된다. 『어우야담』 161화에 등장하는 노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처음 태어나서 돌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유모가 아이를 안고 우물 가까이 가 땅에 내려 놓고 앉아서 깜빡 조는 사이 상국이 기어서 우물에 다가가 거의 빠지려고 하였다. 유모가 꿈 속에서 현결차고 키가 큰 백발장부를 보았는데 그가 지팡이로 유모의 정강이를 때리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이를 보지 않느냐?” 심한 통증 때문에 놀라 깨어난 유모는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였는데 정강이가 여러 날 동안 아팠으므로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¹⁴⁾

13) 『천예록』, 202쪽.

14) 『어우야담』, 302쪽.

유모의 꿈에 나타나 어린 이항복을 구한 백발 장부는 다름이 아닌 이항복의 조상인 익재 이제현이었다. 이에 대해 『어우야담』의 편찬자는 “그의 영령이 3,400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어린 손자아이가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구해낼 수 있었으니 어찌 한갓 그의 신령함이 심한 것일 뿐이겠는가”라고 감탄한다. 이처럼 노인이 가진 신성한 능력이 후손을 위해 발휘될 때에는 앞서 역귀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가문의 조상으로서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신성한 존재의 형상이 다름 아닌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 다시 말해 생과 사의 경계 너머를 응시할 수 있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야담의 시대에도 남아 있다는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한편, 노인의 신성성이 약화된 모습은 예언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언담 속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주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격이라기보다는 이인에 가깝게 묘사된다. 앞일을 예견하는 능력을 지닌 노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 ① 선비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난다.
- ② 노인이 앞날을 예언한다.
- ③ 주인공이 노인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들어서 화를/복을 입는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예언담에 나오는 노인들의 예언은 전쟁이나 정변과 같은 국가적 환란에서부터 개인의 수명과 복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서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하는 ③ 화소의 성격이다. 노인의 예언이 하늘이 정한

15) 신의 대리자로서 노인에 대한 고대의 인식이 야담의 시대에 이르러 변화한 모습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신성한 존재로서 노인이 부정적 역귀의 모습과 공경할 만한 조상의 영령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뜻이라면, 노인의 충고는 하늘이 정해놓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노인은 주인공에게 앞일을 바꿀 수 있는 충고를 해주는데, 이러한 경우 예언과 충고는 주로 개인의 처신과 길흉화복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동패락송』의 <김덕령우로인수부득자방지계이종부면화(金德齡遇老人受不得自放之戒而終不免禍)>는 노인이 알려준 바를 시행하지 못해 끝내 화를 입은 김덕령에 대한 이야기이다.

1. 김덕령이 쫓겨 사냥을 나가 어떤 노인을 만난다.
2. 노인이 사나운 아들을 다스려 줄 것을 청하여 함께 노인의 집으로 향한다.
3. 김덕령이 동자와 힘겨루기를 해서 승부를 내지 못한다.
4. 노인이 김덕령의 방자함을 훈계하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지 말 것을 충고한다.
5. 김덕령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란에 연류되어 옥사한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노인은 단순히 산에 은거하는 범부가 아니다. 신이한 술법을 사용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등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노인은 김덕령이 방자한 성격으로 인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은거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덕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아 끝내 이몽학의 반란에 연류되어 옥사한다.

반대로 『학산한언』 53화는 신이한 노인을 만나 그의 명을 수행하여 집안을 일으킨 윤번의 이야기이다. 숙천부사로 떠나게 된 윤번은 광통교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에게서 계사년에 아들을 볼 것이나 아들의 수명과 복록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윤번이 그 대책을 물어보자 노인은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누런초 오백 쌍을 공양하라고 알려준다. 이에 윤번이 노인의 충고를 따랐는데, 과연 계사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윤두수였다.

『동패락송』의 <승지성삼문근보추노행득신조(承旨成三問謹甫推奴行得

神助>에 등장하는 노인의 이야기는 노인의 예언적 능력이 개인의 고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국가적 환란에 대해서는 천도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노인은 누이의 혼수 마련을 위해 추노하러 가는 성삼문을 만나 종들이 있는 곳으로 절대 가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성삼문은 그 말을 따라 도로 집으로 돌아가 그의 필적으로 된 편지와 함께 혼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이인(異人)임을 알게 된다. 이후 성삼문은 단종 복위를 꾀할 때 다시 노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만고에 이름이 남고/천추에 피를 머금네/일이 되고 안됨을/어찌 내게 묻는가”라는 시가 새겨진 비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누이의 혼수 마련과 추노는 모두 개인적인 문제이다. 노인은 성삼문의 개인적인 곤란에 대해서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단종 복위에 있어서는 그가 죽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어떤 충고도 하지 않는다. 성삼문에게 일을 벌이지 말라는 충고도 하지 않고, 단종 복위의 성사를 위한 계획도 내어놓지 않는다. 물론, 야담은 소설과 달리 이미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담 속의 노인의 능력이 국가적·역사적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예언적 기능만을 하고 그것을 전복시킬 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혹은 못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신화시대에 천지만물을 생동시키고 조화를 부리던 신격의 능력이 야담의 시대에 와서는 현저히 약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인의 경륜 : 지혜와 경험의 전수자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경험과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의 전수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서야담』 및 『청구야담』 등에 전하는 명의(名醫) 유상에 대한 일화에 경륜으로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청구야담』 <청가어유의특명(聽街語柳醫得

名)>에는 유상이 숙종의 흑함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한다. 첫 번째 노인은 유상이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존재이다. 유상은 그의 서재에서 의서를 훑쳐 보고 새로운 의술을 습득한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노인은 유상이 임금의 병을 받아 궁궐로 가던 중에 만난 노구(老嫗)이다. 그녀는 흑함을 앓았던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곁에 선 사람에게 시체탕(감쪽지)을 아이에게 먹이니 병이 나았다고 말한다. 유상은 시체탕이 지난밤에 본 의서에도 나온 처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왕에게 올려 병을 고친다. 왕의 병을 고치는 데 노구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계서야담』에 수록된 유상 일화에 등장하는 노구 역시 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조연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는 숙종께서 연포탕을 드시고 관격이 되시어 파발마로 유의원을 부르니 밤을 새워 올라왔다. 새 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문 안에서 병조에 고하자 명령을 내려 문을 열게 하였는데,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조금 지체가 되어 늦어졌다. 유의원이 성 아래 한 초가에 등불이 밝은 것을 보고 잠시 그 집에서 쉬는데, 한 노구가 방안의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아까 쌀뜨물을 어느 곳에 두었느냐? 두부 위로 떨어질까 무섭구나.” 유의원이 괴이하여 물으니 대답하였다. “쌀뜨물이 두부에 떨어지면 즉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 문지기가 나와서 성문을 열었다. 유의원이 이에 대궐에 증후를 물으니 연포로 체한 것이었다. 바로 내의원으로 하여금 쌀뜨물 한 그릇을 들이게 하여 조금 따뜻하게 하여 임금께 드시게 했다. 체기가 이내 내려갔는데, 이 일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¹⁶⁾

위 이야기에서는 왕이 두부를 먹고 체하여 유상을 급히 부른다. 유상은 우연히 한 노구를 만나 “쌀뜨물이 두부에 떨어지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지혜를 전수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왕의 병을 고친다. 유상이 왕의

16) 『계서야담』, 234-235쪽.

병을 치료한 두 이야기에서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등장하는 장치는 다름 아닌 감꼭지와 쌀뜨물이다. 감꼭지와 쌀뜨물은 귀한 약재라기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민간에서 각 증상의 치료제로 두루 사용되었을 것이고, 민간요법으로 효험이 있었을 터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민간요법을 전수해주는 존재가 노인이라는 점이다. 유상 일화에 등장하는 이러한 노인의 대해 “민간요법에 대한 인식을 격상시킬 수 있는 신성한 장치”¹⁷⁾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청가어유의 득명>에서 유상이 처음 만난 산 속의 노인은 앞 장에서의 신성한 노인에 가깝다. 그러나 유상에게 결정적인 방도를 전수해주는 노구의 경우 삶의 경험이 풍부한 조언자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유상 일화에서 노구에 대한 묘사는 특별할 것이 없다. 신성성을 가진 노인을 묘사할 때 흔히 나타나는 기골이 장대하다거나 백발에 홍안이라는 등의 표현이 없다. 그저 아이를 업고 있거나 두부를 만드는 여염의 늙은 여인으로 묘사된다. 신인이라면 할 법한 조언도 예언도 없다. 그러나 노구의 존재는 유상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그녀가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꼭지가 흑함을 닦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혹은 손자)를 통해 경험한 것이며, 쌀뜨물이 두부를 녹게 한다는 것 역시 경험을 통해 익힌 것이다. 유상은 이러한 노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다. 결국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노구의 발화와 그를 그대로 적용하는 유상의 행동의 기저에는 지혜와 경험의 전수자로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유상 일화에서 결정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노인이지만, 실제로 병을 고치는 사람은 유상이다. 왕의 병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 노인은 조언자, 즉 보조적 인물로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정의 화락과 번영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17) 김국희, 앞의 논문, 참조.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기문총화』 304화는 질투가 심한 며느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가정을 화평하게 만든 안동 권씨 노인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 권옹이 위엄으로 집안을 다스렸는데, 며느리가 투기가 심하였다.
2. 아들 권생이 처가에 갔다가 우연히 젊은 과부와 인연을 맺는다.
3. 권생이 집안이 어지러워질까 두려워하자 친구들이 권옹에게 대신 사실을 고한다.
4. 권옹이 거짓으로 화를 내며 권생을 죽이고자 한다.
5. 며느리가 영원히 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야기에서 안동 권씨 집안의 화평을 막는 것은 며느리의 투기였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아들 권생이 우연한 기회에 부유한 사대부가의 젊은 과부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젊은이인 권생과 노인인 권옹의 대처는 극명하게 갈린다. 권생은 제멋대로 첩을 얻었으나, 질투 심한 아내를 능히 다스릴 재주가 없다면서 과부를 주막에 머무르게 하고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권옹은 사태를 접하고 바로 거짓으로 아들을 죽이려하면서 며느리의 투기를 다스린다. 이 이야기에서 집안의 화평을 주도하는 존재는 바로 노인이며 그의 지혜로움이 연소한 아들과 비교된다.

『동패락송』 <문곡김수항부인택서지수요직금의삼상(文谷金壽恒夫人擇壻知壽天織錦衣三相)>에서도 지혜로운 노인과 그에 대비되는 연소한 사람이 등장한다. 김수항 집안에서 사위를 들이는데, 김수항의 아들들이 민씨 집안의 자제와 이씨 집안의 자제를 비교하여 이씨 집안의 자제를 들인다. 혼인날에 김수항의 부인이 두 집안의 자제를 보고는 이씨 집안의 자제는 요절할 것이며, 민씨 집안의 자제는 부귀를 누릴 것이라며 탄식했다는 것이다. 같은 야담집의 <한죽당신임택손녀서득유척기(寒竹堂

18) 동일한 이야기가 『동패락송』, 『청구야담』에도 등장한다.

申鉞擇孫女婿俞拓基>에서는 더벅머리 아이를 손녀사위로 고른 신임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인의 결정에 며느리는 불만을 가지지만, 후일 아이는 손녀와 백년해로하고 영의정까지 오른다. 두 이야기에서 노인은 지인지감을 지닌 존재로, 연소한 아들과 며느리는 지인지감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진다. 동양 문화권에서 지인(知人)은 유가나 도가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며, 현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었다.¹⁹⁾ 즉, 야담 속에서 노인이 지인지감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은 가정의 화락과 번영을 책임지는 지혜의 소유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노인의 장수 : 가문 번영의 상징

조선후기에는 한 남성이 평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모습을 과정에 맞춰 보여주는 평생도를 병풍으로 그리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그림은 대개 늘그막에 회혼식을 올리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난다.²⁰⁾ 회혼식(回婚式)이란 혼례를 치른 해로부터 60주년이 되었을 때 다시 치르는 예식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오복(五福)의 으뜸으로 수(壽)를 손꼽았을 정도로 오래 사는 것을 복된 삶으로 여겼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 맞이하는 회갑, 회혼, 회방(回榜)은 특별한 의례로 기념하였다. 회갑은 물론 이거니와 회혼과 회방을 맞기 위해서는 80-90세까지는 살아야하기 때문에 회갑연과 회혼연, 회방연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다.²¹⁾ 그래서 장수하는 노인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송축이 이루어

19) 여기서 지인은 남의 능력을 알아보는 행위, 혹은 그러한 인물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지인담의 주체가 남성일 경우, 그가 발탁한 피지인(被知人)은 숨어있는 인재로 공적 임무를 완수하거나, 혹은 재상이 된다. 지인이 여성이고 피지인이 남성인 경우는 여성의 배우자 선택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으로 묘사되는 경우 그 성격이 일반적인 지인담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후손을 위한 배우자 선택에 노인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다.(강영순, 『조선 후기 여성지인담의 존재양상과 의의』, 『연민학지』 2, 연민학회, 1995, 188쪽 참조.)

20) 김미영 외,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4, 132쪽 참조.

지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회혼을 맞이한 신하를 극진하게 예우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이는 회혼으로 상징되는 노인의 장수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조정의 길상(吉祥)이자 선사(善事)’ 또는 ‘국가의 가서(佳瑞)’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²²⁾

『송천필담』에서는 국가가 장수한 노인을 송축한 다양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107세까지 장수하여 숙종으로부터 물품을 제수받은 김상신과 100세에 영조로부터 수직(壽職)으로 벼슬을 받은 이박²³⁾의 이야기, 여든여섯에 셋째 아들을 낳고 아흔에 수직에 추징된 황상²⁴⁾의 이야기, 회혼례에 영조로부터 나무 기러기를 받은 안윤행과 그 부인 이야기는 장수하는 노인의 복록을 보여준다. 한편, 『송천필담』에는 이들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회갑과 회혼 직전에 죽음을 맞이한 두 노인의 이야기도 보인다. 『송천필담』 325화에는 예산에 사는 김씨 부부가 80이 넘어 회혼의 기일이 되었는데 바로 전날에 노부인이 측간에 가다가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와 모 선비의 부인이 100세가 되기 하루 전에 급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송천필담』의 편찬자 심재는 “중외의 경사와 백세의 수명을 채우는 것이 하루 밤 사이로도 오히려 꼭 이를 수가 없다”며 한탄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당대에 노인의 수복(壽福)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담에서 장수하면서 큰 복을 누렸다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두 노인이 있다. 바로 판서 홍상한과 심액이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동패락송』, 『계서야담』, 『기문총화』 등에 실려 있다. 판서 홍상한의 이야기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풍류를 즐겼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홍상한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손자인 홍의모가 사마시에 급제하

21) 김만태,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가 갖는 의미 분석』, 『실천민속학연구』 12, 실천민속학회, 2008, 44쪽.

22) 정인숙, 앞의 논문, 116쪽.

23) 『송천필담』 323화.

24) 『송천필담』 324화.

였는데, 그가 한 달 가까이 매일 풍악을 올리고 오가는 사람을 대접했다. 이에 홍상한의 맏아들인 홍낙성이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부친을 만류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흥미로운 것은 홍청거리는 것을 만류하는 친척에게 보이는 홍상한의 태도이다.

내 제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으로 태평성대를 만나 벼슬자리가 종1품에 이르고, 나이도 팔순을 넘겼다네. 또 손주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고 이처럼 즐겁게 지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소공주동의 아무개는 1품 벼슬을 하고 나이 팔십에 손자가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보더니 미쳤더라.’한다더군. 그렇다고 뭐가 해로운가? 자네 한번 보게나. 내가 죽은 뒤 먼지가 쌓인 청풍당 한 모퉁이에 참판이 쪼그리고 앉아 있을 텐데,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²⁵⁾

홍상한이 노년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죽은 뒤에는 먼지가 쌓인 청풍당에 자식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을 뿐일 테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지금을 즐기겠다는 것이다. 그의 풍류가 못마땅한 맏아들 홍낙성이 “사람됨이 조심성이 많고 졸렬하다”는 평을 듣는 것과 다르게 그는 현재를 즐기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그가 한 달이나 풍악을 올리며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손자가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이다. 본인과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삼대가 벼슬을 하였다는 자부심이 그가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셈이다.

심액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 선조 대부터 효종 대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계서야담』과 『동패락송』에서는 공통적으로 심액의 장수와 복록을 이야기하고 있다.

판서 심액은 나이 여든이 넘어 회근(回鰓)과 회방(回榜)을 치렀다. 이 때 장자 광수는 승지이고 둘째 아들 광사는 벼슬이 전부(典簿)였는데,

25) 『기문총화』 중, 52쪽.

손자 일곱에 문과 급제자가 다섯 명이었다. 내외의 자손이 모두 70여명이었는데 화수계(花樹契)를 맺었다. 각자 생일날에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앞에서 축수(祝壽)하였는데, 거르는 달이 거의 없었고 간혹 한 달에 겹쳐서 행할 때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성사(盛事)로 여겼다.²⁶⁾

심액이 홍상한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노인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여러 야담집에 일화가 소개되었던 것은 자식과 손자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자손이 70여 명에 이를만큼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수하여 복록을 누리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기저에는 가문의 번영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있다. 행복한 노년의 수복은 번성한 가문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오래 살더라도 자손이 없는 노인은 결핍된 인생으로 인식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청구야담』의 <노학구차태생남(老學究借胎生男)>에 등장하는 노인은 재산이 만석이 되고, 나이 육십이 되었지만 의용이 응위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는 자식을 얻지 못하였기에 스스로도 곤궁하고 외롭다고 느낀다. 결국 노인은 아들을 열이나 가진 선비에게 자신의 세 첩을 차례로 보내어 아들 셋을 얻는다. 남편이 있는 여인, 특히 사대부 가의 부실(副室)을 탐하는 것은 법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엄히 금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노인은 시종일관 저자세로 선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바란다. 야담의 화자는 선비가 노인의 첩을 취한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노인에게 만년에 자식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노인 사후 선비의 핏줄인 세 아들이 노인의 제사를 잊지 않고 매해 모셨다는 후일담을 전하면서 그 또한 노인이 늘그막에 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자식과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가문의 번영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던 셈이다.

26) 『계서야담』, 657쪽.

4) 노인의 탐욕 : 비난과 해학의 대상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君君臣臣父父子子”는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개인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금의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든 자신의 위치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으며, ‘-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²⁷⁾ 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인답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노인의 이미지, 사회 교화적 차원에서 효의 대상이 될만한 노인의 이미지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노인은 사회적 존송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다면 ‘노인답지 못한 노인’이란 어떤 모습일까. 야담에서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 노인을 비난과 해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구야담』의 <풍인객오물음선해(諷吝客吳物音善諧)>에 등장하는 중실 노인은 재물을 모아 거부를 이루었으나 천성이 인색하여 추호도 남에게 주는 바가 없고, 특히 네 아들들에게 분재(分財)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노인에게 탐욕을 버리라고 충고하였으나 그는 차마 능히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했다. 결국 오물음이 나서서 고담(古談)으로 조롱한 후에야 겨우 깨우쳐 분재를 하고 산정(山亭)에 거처하면서 거문고로 자락(自樂)하며 종신토록 재물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⁸⁾ 이야기에서 노인은 가장 세속적인 경제적 문제에 있어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야기 말미에 잘못을 깨달은 노인은 산정에 한가로이 지내면서 자락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세간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노인상이었던 셈이다.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내방(內房)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곳간의 열쇠를 넘

27) 박양리, 『公·私 대립을 통해 본 이행기 한일 대중문학』, 『코기토』 6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91쪽 참조.

28) 『청구야담』 1, 203-205쪽.

기듯이 노년은 비워서 채워야 하는 시기이기에 재물과 같은 것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인의 탐욕이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면 더욱 큰 비난과 조롱이 따랐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경우 색(色)은 경계의 대상이다. 야담에서는 남녀의 진실된 애정은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젊은이들과 똑같은 욕망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노인들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게 된다. 노인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혐오스럽다고 인식된다.²⁹⁾ 애정은 인간보편의 감정이지만, 노인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과 비교되어 폄하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청구야담』의 <영기양광수곡수(營妓伴狂隨谷倅)>에서는 야담 향유자들이 노인의 사랑과 젊은이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이야기의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 늙은 순상(巡相)이 곡산기 매화에게 빠져 총애하였다.
2. 젊은 곡산 수령이 우연히 매화를 보고 반하여, 매화의 부모에게 청탁을 한다.
3. 매화의 부모가 거짓으로 칭병하여 매화를 불러 곡산 수령과 만남을 주선한다.
4. 매화와 곡산 수령이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5. 매화가 거짓으로 미친 척 하여 순상을 떠나 곡산 수령의 첩이 된다.
6. 순상이 사실을 알고 곡산 수령을 타박하자, 곡산수령이 연관을 부추겨 순상을 파직하게 한다.
7. 곡산 수령이 옥사에 연류되어 죽자, 매화가 자결하여 절개를 지킨다.

이야기에서 매화를 사랑한 두 남자가 등장한다. 그런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곡산 수령은 “나이 겨우 삼십여 세라, 풍의(風儀)가 동탕(動蕩)하고 순상은 용모가 노추(老醜)하니 선범(仙凡)이 현수(懸殊)”하다면서 젊은 수령과 늙은 순상을 비교하고 있다. 분

29) 시몬 드 보부아르, 앞의 책, 11쪽.

명 매화를 먼저 만나서 총애했던 것은 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화가 곡산 수령을 위해 거짓으로 미친척하면서 순상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후일 사실을 알게 된 순상은 곡산 수령을 꾸짖지만, 그는 적반하장으로 언관(言官)을 매수하여 순상을 파직하게 만들기까지만다. 순상은 굳이 곡산 수령을 불러 매화의 일을 따로 물어볼 정도로 그녀를 아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화에 대한 순상의 사랑이 진심이었던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노인의 사랑은 젊은 두 남녀의 진정한 애정을 가로막는 방해물일 따름이었고, 거짓으로 미친척 하여 그의 사랑을 거부한 매화는 기지있는 여인일 따름이다. 순상을 버리고 곡산수령에게 가서, 그가 죽자 자결하여 따라 죽은 매화에 대해서 여자 중의 예양(豫讓)이라면서 절개를 칭송하기까지 한다. 두 사람이 속이고 심지어는 파직케 만든 늙은 순상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 진정한 애정은 젊은 두 남녀에게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사랑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기문총화』 69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늙은 병마절도사와 나이 어린 기생의 이별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병마절도사가 어린 기생을 몹시 사랑했기에 창고를 털어 재물을 가져다 주다가 임기가 차서 작별하게 되었는데 기생의 손을 잡고 울어 소맷자락이 모두 젖었다. 그러나 기생은 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결국 기생의 부모가 몰래 머리채를 잡고 때리니 그제서야 큰 소리로 울었다. 이에 병마절도사가 “우지 마라. 네가 우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구나”³⁰⁾라고 슬퍼했다는 것이다. 물론, 병마절도사에게 어린 기생과의 사랑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야담의 향유자들은 노인의 사랑에서 낭만을 찾지 않는다. 이야기의 초점은 병마절도사의 어리석음에 대한 해학에 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색(色)에 빠져서 창고의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어린 기생의 거짓 울음을

30) 『기문총화』 상, 178쪽.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 슬피하였다는 장면은 실소(失笑)를 자아낸다. 노인의 성욕은 그저 탐욕이고 탐심이다. 『동괘락송』의 <판서윤강후취촌부전후사자이상이판서(判書尹絳後娶村婦前後四子二相二判書)>에서 늙은 윤강이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좌수의 딸과 하룻밤 동침을 하고는 달아나 장성한 두 아들에게 “너 애비가 늙어 망령을 부렸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자조했듯이, 노인의 탐욕은 늙은 망령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3.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신화의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신은 노인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세상을 창조하고 거대한 산과 바다, 섬을 만들어내고 또 파괴하는 신은 할미였다. 제주의 설문대할망과 죽령의 다자구할미로 대표되는 여신들은 할미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층에 기억된다.³¹⁾ 『삼국유사』 <수로부인>조에 등장하는 암소를 탄 노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정체와 역할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지만 그의 본질이 도교적 신선이든, 불교적 선승이든, 무속적 신격이든 간에 그가 초월적 존재임은 분명하다.³²⁾ 『삼국유사』의 불교설화에서는 관음보살과 변재천녀와 같은 신격의 존재가 늙은 노파로 현신하기도 한다.³³⁾ 노인은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존재이기에 신성한 존재였으며, 신의 대리자이자 사제로서 노인은 왕의 조언자가 되기도 했다.

31) 신성한 할미에 대해서는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25-45쪽 참조.

32) 성기옥, 『<현화가>와 신라인의 미의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69쪽 참조.

33)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219-222쪽.

그러나 신화의 권위가 약화되고 신성성이 사라지는 시기에 이르러서 노인의 신성성 역시 괴이한 것으로 치부된다. 군자는 ‘불어괴력난신(不語怪力亂神)’이라고 믿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되거나 실증되지 않는 신화 속의 존재들은 인간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폄하되었다. 이에 따라 고대 신화 속에서 신의 모습이 화(化)한 것이거나, 혹은 신으로 화(化)했던 것으로 여겨지던 노인의 존재도 역시 괴이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생과 사를 다스리는 생사관관의 위엄보다는 죽음을 알리는 불길하고 괴이쩍은 존재가 된 것이다. 신격으로서 노인의 능력은 그저 개인 혹은 가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이능 정도로 약화된 셈이다.

신성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대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환영을 받게 된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통사회에서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 그들의 가족과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멘토³⁴⁾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다. 문화적으로도 노인들은 한 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문화전달자이자 교육자였다.³⁵⁾ 실제로 16세기 양반가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암일기』를 보면, 조부로서 유희춘은 손자를 직접 양육하면서 엄히 글공부를 시킨다. 『양아록』의 저자인 이문건 역시 손자를 교육하면서 가문 창달을 위한 지식의 전수자 역할을 하였다.

가정의 화락에 있어서도 젊은이의 혈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노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가문의 존장으로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의 국문장편소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노인의 모습은 주로 가족 관계 속에서 ‘조부’, ‘조모’,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노인은 엄한 교육과 자애로운 사랑으로 집안의 갈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윤리를 실행하는 언행을 보인다.³⁶⁾

34) 권경숙,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 『한국문학논총』 76집, 한국문화학회, 2017, 222쪽.

35) 윤용섭 외, 『노인이 스승이다』, 글항아리, 2015, 44쪽.

17세기 중후반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사회에는 가문의 내적 결속과 외적 번영을 추구하는 가문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바탕에는 종법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예학(禮學)의 강화가 존재했다. 종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가장권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를 뒷받침 하는 윤리도덕관념이 소위 존존(尊尊), 장장(長長)을 기본으로 하는 효(孝) 사상이었다.³⁷⁾ 이러한 사회 질서의 기반으로 효의 중요성은 경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효경』에는 “천자는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대학』에서도 “늙은이를 공경하면 모든 백성이 효를 일으킨다”라고 했다. 유교가 기틀이 되었던 조선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은 사회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가문의 웃어른이면서 사회의 존장(尊長)으로 인정받았다. 국가에서는 노인직(老人職), 양로연(養老宴) 등의 제도를 통해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야담에서도 노인이 노인직을 받거나, 회로연, 회방연을 여는 것은 가문의 복록으로 과시되었다. 이러한 다복한 노인은 사회적으로 당위적인 노인의 이미지이며, 유교적 교화가 실현된 이상적 이미지였다. 동시에 이렇게 정형화된 이미지의 노인의 형상은 역설적이게도 노인에게 ‘노인답게’를 강요하는 장치가 되기도 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장현광은 <노인사업(老人事業)>이라는 글을 통해 노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는 “다만 한 방에 고요히 앉아서 일체 사무를 정지하고 경영을 그치며 출입을 끊고 왕래를 끊으며 응접을 적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세속의 잡된 일을 버리고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히는 공부로 무극과 태극의 묘한 이치를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³⁸⁾ 노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주체적 욕망

36) 정선희,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의」, 『한국고전연구』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91-200쪽 참조.

37)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편, 장세호, 「인간 도리의 근원, 공자의 효사상」,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참조.

38) 김미영 외, 앞의 책, 165-171쪽 참조.

을 부정한 것이다. 결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노인은 경륜을 가진 존재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는 가정의 화락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발휘 될 때에는 존숭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가 가진 재물과 애정과 같은 개인 적 욕망은 거세된 셈이다.

노인의 신성성이 신화의 시대가 지나면서 약화되었듯이,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노인에 대한 인식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농업경제를 주축으로 한 대가족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진 경험의 축적, 그리고 자손의 교육으로 대변되는 혈연적 양육체제가 중시되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더이상 노인의 경험과 지식 전수가 예전만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중요시되는 현대에서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증가는, 가정에서 노인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또는 아예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인의 덕담은 옛 말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장수와 자손의 번성이 행복한 노년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잘 사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더이상 창조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다만 정리하는 존재, 다시 말해 무욕의 존재이기를 요구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의 정체성 발견을 위한 개인적 욕망의 긍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조선시대에 야담이 노인의 당위적 이미지를 전파하였다면, 지금은 대중매체가 노년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 속에 노인은 여전히 ‘과거에 고착화된 존재로’ 타자화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³⁹⁾ 이제는 과거에 고착화된 존재로서 노인이 아니라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형성의 능력과 자기 긍정의 능력을 갖춘 존재로 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할 것이다.

39)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65-71쪽 참조.

4. 결론

본고는 야담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선 사회가 노인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야담의 향유자들은 신격으로서의 노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으로 양면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 초월적 존재였던 신격으로서의 노인은 부정적이고 괴이한 존재로 폄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문을 지켜주는 존재로서 공경의 대상이 되거나, 예언적 능력을 가진 이인(異人)으로서 개인의 길흉화복에 관한 충고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한편, 초월적 능력이 아닌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륜을 지닌 노인의 경우 조연자이자 전수자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경륜은 국가나 가정을 위해 십분 발휘되었다. 한편, 노인의 장수는 가문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경우 노인의 행복은 자손과 가문의 번성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노인 개인의 주체적인 욕망, 즉 재물이나 성적 욕망은 경계의 대상으로 비난과 해학의 소재가 되었다.

신화의 시대에 노인은 신성한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야담이 널리 향유되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인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질서 하에서 가문의 웃어른이면서 사회의 존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정형화된 이미지로서 ‘노인답게’ 행동하면서 개인적 욕망은 거세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에서 거세되었던 개인적 욕망을 되살려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계서야담』,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국학자료원, 2003.
- 『고금소총』, 정용수 역, 국학자료원, 1998.
- 『교감역주 송천필담』1·2·3, 심재, 신익철 외 역, 보고사, 2009.
- 『국역 기문총화』상·중·하, 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2008.
- 『국역 동패락송』, 노명흠, 김동욱 역, 보고사, 2012.
- 『국역 청성잡기』, 성대중, 김종태 외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6.
- 『국역 학산한언』1·2, 신돈복, 김동욱 역, 보고사, 2006.
- 『어우야담』, 유몽인, 이월영·채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6.
- 『청구야담』, 이월영·시귀선 역, 한국문화사, 1995.
- 『천예록』, 임방, 김동욱·최상은 역, 명문당, 2003.
- 강영순, 「조선 후기 여성지인담의 존재양상과 의의」, 『연민학지』 2, 연민학회, 1995, 187-207쪽.
- 권경숙, 「구비설화 속 노인의 생존 전략과 공생논리」, 『한국문학논총』 76집, 한국문학회, 2017, 201-233쪽.
- 김국희,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 _____,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70집, 한국문학회, 2015, 37-70쪽.
- 김만태,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가 갖는 의미 분석」, 『실천민속학연구』 12, 실천민속학회, 2008, 43-90쪽.
- 김미영 외,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4.
- 김양진, 「한국고대설화 속의 노인 이미지 특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제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197-228쪽.
- 박양리, 「公·私 대립을 통해 본 이행기 한일 대중문학」, 『코기토』 6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85-109쪽.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편,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윤용섭 외, 『노인이 스승이다』, 글항아리, 2015.

정선희,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의」,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9-207쪽.

정인숙,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문학치료연구』 제19집, 문학치료학회, 2011, 113-141쪽.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Abstract>

The Images and Their meanings of the Aged in Yadam

Park, Yang-R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aged are figured and described and in yadam and also how they were accepted in the society. In ancient times, the aged were revered for their god-like nature with divinity, but in the times of yadam, their divinity became weakened. Instead, they were regarded as an object of fear or avoidance for being a peculiar being or objects of respect as a prophets who could foretold a family or person's rise or fall. They were also admired for being people delivering their wisdom or experience as they were regarded to be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The long life of the aged is the symbol of a family's prosperity, and in historical tales, their lives are described as something blissful when their descendants prospered and their families makes progressed. However, when they sought too much of personal desire freely, especially on wealth or lust, they become the object of blame as well as humor. On the base of such recognition on the aged, there existed ideal images about the aged that Chosun society pursued. Those enjoying historical tales then were conceived of as the ideal symbols of the aged as the country, from which personal desires should be abandoned for family's prosperity. Such a

* Dongeui University

way of valuing the aged remains in this contemporary age. Now is the time that we should consider how our society views the aged and what value their existence has.

Key Words: The aged, old age, recognition on the aged, yadam, problems related to the aged

■ 논문접수 : 2018년 3월 18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7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6일

